

어릴 적 나무하던 동산에 새 희망의 평달농장

김기완 · 박순이 부부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어릴 적 나무하던 동산에 꿈의 농장 (평달농장) 가꾸기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1리, 한길가의 자연부락에서 가파른 비탈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평달농원' 이 나타난다. 그리 깊은 산속도 아닌데 밭 밑에 온 세상이 다 보인다. 넓게 닦은 터 위에 메밀·콩·고구마·벼 등 여러 가지 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 가운데 김기완(55세) 씨의 전원주택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서 있다. 주변의 푸른 자연과도 썩 잘 어울리는 알프스풍의 우아한 2층 목조가옥으로 김씨가 오랫동안 건축계통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죄다 쏟아 부어 직접 지은 집이다.

농촌 소개TV 프로그램 부부가 함께 보며 귀촌 꿈을 키우다.

“창문도 4면으로 다 냈기 때문에 풍광이 어디서나 다 보이지요. 목조주택은 습기가 방지되고 난방도 잘 됩니다.”

김씨의 아내 박순이(54세) 씨도 산을 살리기 위해 숨 쉬는 집을 지었다며 자랑스럽게 거들었다. 올해 6년째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는 마냥 행



▲ 텃밭 뒤로 펜션과 창고.

복한 표정이었다.

“저는 도시에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농촌에 와서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시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죠. 늘 긴장하며 각박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여기서서는 자연을 보며 자아 성찰하는 여유를 누립니다. 요즘 시골이 더 살기 좋아요.”

그녀는 시골예찬론자가 되어 있었지만 과거 남편이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농장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때만 해도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남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후 남편은 열다섯 살 때 객지에 나갔는데, 그때 돈을 벌면 꼭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터는 김씨가 어릴 때 나

무하리 즐겨 다녔던 골짜기라고 했다. 김씨는 서울에서 결혼도 했고, 주방타일과 변기 등을 취급하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었다. 어느새 나이 오십을 앞두고 귀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김씨는 아내를 설득할 방법을 찾았다. 그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TV를 통해 농촌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꼭 아내를 불렀다. KBS에서 전국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로 농촌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을 늘 같이 보면서 김씨는 아내에게 "농촌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우리도 가자"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처음 한동안 고개를 가로저었던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3년이 걸렸지요. 내 소원이 한 번 다녀간 사람은 꼭 찾고 싶어 하는 농장을 고향에 만드는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죠."

결국 박씨가 남편의 뜻을 따르게 되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바로 이 자리의 땅 3만5천 평을 샀다. 2000년 1월 1일 뉴밀레니엄을 맞아 세상이 들떠 있던 날 김씨 부부는 3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그 후 3년에 걸쳐 연건평 60평의 펜션형 2층 목조집과 60평의 창고를 지었다. 대지 조경공사도 직접 했다.

자연냉장고를 이용해 도시의 친구들과 정다운 시간을 나누다.

본채 1층은 김씨 가족을 위한 생활공간이고 2층은 민박도 하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각종 회의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졌다. 2층 회의실과 방은 동시입실 20명의 규모로 소규모의 MT나 사원 교육, 워크숍이 가능하며, 방이 3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가족들의 쉼터로도 알맞은 구조다. 또 60평

의 창고는 집단수용 시 동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주방시설과 식탁이 갖추어져 있다.

창고 옆 산기슭에는 5~6m 쯤 되는 토굴이 있는데, 김씨가 아들과 함께 2개월간 해머드릴로 뚫었다고 했다. 마사토로 이뤄진 땅이어서 파내기도 쉽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서 드나들 수 있는 폭과 높이로 파 들어갔다. 맨 안쪽에는 다시 T자형으로 좌우를 파 들어가 거기에 포도주를 담은 통과 감자씨 따위를 보관하고 있었다. 내부 온도는 바깥의 계절과 관계없이 사시사철 섭씨 17~18℃를 유지한다고 했다. 천장과 벽은 둥그스름한 타원형 형태로 마사토 흙벽 그대로여서 자연원리를 이용한 천연냉장고이다. 입구에는 문을 달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내려와서 농장을 짓고 난 후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도시의 많은 친구와 알음알음으로 농촌을 사랑하는 도시인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선택과 계획이 시대의 변화와 잘 맞아 떨어졌다고 귀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주위의 어른신, 그리고 도시민과 함께 나누는 농촌생활의 여유로움

"본인(남편)의 때가 안 묻은 곳이 없어요. 손님들이 오면 남편은 농장을 일일이 안내하며 자신이 개간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자아성취감으로 행복해하죠."

박씨는 그런 남편이 이제는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여기 와서 첫해에 콩을 심었는데, 알이 배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실패한 원인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때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 받으러 다니며 많이 배웠어요."

전남 여수가 고향이지만 농사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박씨로서는 군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새삼 감사를 표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사짓는 법은 물론이고 각종 취미생활교실이나 수준 높은 교양강좌도 열어줘 문화센터 구실까지 하지요.”

김씨는 그래서 아내가 농촌생활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지만 아내는 아는 사람 하나 없었죠. 그러나 적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나가 기술을 익히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여쭙보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야생초 차에 대해 배우고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인 취미생활 동아리인 ‘다도회(茶道會)’에도 가고 장수도우미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니 본인도 건강해졌어요.”

김씨는 16마리의 염소를 비롯해 오리, 칠면조, 개, 닭, 오골계 등의 가축도 키운다. 봄이 되면 온 마당이 취나물로 덮여 도시인들을 초대해 취나물 축제도 한다. 산에서 가끔 노루가 내려와 콩밭을 망쳐놓기도 해 처음에는 몹시 속상했지만 이제는 짐승과 나눠먹는 법을 배웠다며 김씨의 아내는 웃었다.

시골로 돌아온 후 두 부부는 금슬도 두터워졌다. 언제나 농장에서 같이 붙어살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방해할 수도 있는 TV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이다. 서울에서 귀향을 꿈꾸던 시절 아내를 설득했던 도구가 TV였으나 막상 시골에 내려온 후에는 없었던다.

“요즘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도 TV에 빼앗겨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TV를 찾다가 아쉬워하지만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문화가 형성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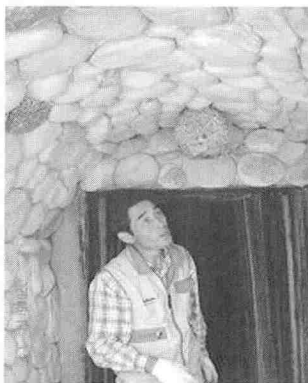
그들이 살고 있는 1층은 1남 3녀를 위한 방들이 있는데, 방마다 화장실을 다 갖춰 놨다.

“사위가 장모 앞에서 속옷 바람으로 화장실에 갈 수 없잖아요.”

김씨 부부가 출가한 두 딸들이 가끔 와서 잠을 자더라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설계해서 지었는데, 그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자상하고 남을 섬세하게 배려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서울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오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돌아갑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서로 배려가 부족한 탓인 것 같아요.”

그들의 배움을 받고 돌아가는 방문객들의 마음도 푸근해졌다. ㉟



▲ 토굴의 자연원리를 이용한 천연냉장고